

7일 폐막 앞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차별화·대중화·경제성 돋보여

10회째를 맞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이 오는 7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올해는 대중성, 정체성, 경제성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행사는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본전시 외에도 특별전, 연계 기념전, 국제학술행사, 디자인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무엇보다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동구미로센터, 광주 전역으로 행사장을 넓혀 접근성을 높인 점이 방문객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꼽힌다.

지역 디자인계의 참여도 확대됐다. 본전시를 비롯해 특별전 등에 400여 명의 지역 디자이너, 작가, 대학생이 참여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7일부터 오는 11월 7일)는 50여 개국 195개 기업, 디자이너 855명이 참여해 2718점 디자인 작품을 선보였다. 올해 전시 규모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07년(제2회) 2007점을 크게 웃돈다.

또한 올해 누적 관객수는 지난 1일 기준 51만 1457명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행사(온라인 관광객 포함) 42만3598명에 비해 20%이상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 2019년 행사의 32만2869명에 비해 58% 가까이 증가했다.

역대급 콘텐츠는 행사 차별화는 물론 정체성 확보로 연계됐다.

행사 기획 단계부터 'Meet Design(디자인을 만



평수 초청 행사 장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공>

50여 개국 디자이너 855명 참여 방문객 51만명...볼거리·체험 풍성 수출상담회...지역상품·굿즈 판매

나다)'를 주제로 구성된 본전시는 4개 테마로 진행됐다. 예술과 차별화된 디자인, 디자인이 바꾸는 기술의 미래, 라이프스타일, K-컬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했다.

또한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IF, Red-dot(레드닷) 디자인어워드도 참여했으며 특히 IF 소셜 임팩트 프라이즈 수상작들은 전세계 디자이너들이 인류 당면 문제에 다양한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시관별 콘텐츠는 '보는' 전시를 넘어 친환경과 지속가능성, 체험 등에 무게를 뒀다. 멸종 위기동물 컬러링 스티커 붙이기인 메타버스 체험존, 커다란 빵 모양의 빈백소파에 앉아 전시를 즐기는 '거대하고 맛있는 빈백'은 체험객들로 붐볐다. 카카오프렌즈 VR 레이싱 체험, 나니아 리를 큐레이터, 나만의 머그컵 디자인 체험 등도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홍보마케팅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대통령 부인 방문을 비롯해 명예홍보대사 펄수 초청 행사(9월 16일), 블루보틀 커피트릭 입점 등이 그 사례다. 영상물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관객몰이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민과 함께하는 개막식'을 모토로 한 프로그램도 이목을 끌었다. 디자인비엔날레 사상 개막식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 및 초청은 발상의 전환으로 평가받는다.

야외광장에서는 문화콘서트 '야금비콘'을 비롯해 제11회 G-POP 페스티벌, 핸드메이드 플라마켓, 문화가 있는 날 등 공연과 연계해 관람객 발길을 붙들었다.

경제적 부분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10월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UAE, 호주, 일본 등 13개국 바이어, 36개 지역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총 2166만불(292억원 상당) 규모의 수출상담 및 855만불(115억원 상당) 수출 계약을 이뤘다.

지역 우수상품 전시판매관(디자인상품, 핸드메이



본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

드, 관광굿즈 등 200여 품목)에서는 1억원(블루보틀, 편집숍 제외)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 작품 가운데 카나리아 공기질 측정기, 거대하고 맛있는 빈백, 멸종 위기 동물 컬러링 스티커북, 무등산 향수, WALKER & CHAIR(위커&체어) 등은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ESG', '지속가능성'을 표방해 전시관은 기존 목재 가벽 및 석고보드 사용을 50% 가량 줄이고, 친환경 하니콤보드 등으로 대체해 폐기물을 최소화했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 전시의 차별화, 정체성 정립, 대중화, 경제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 "오는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올해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막식은 오는 7일 오후 6시 비엔날레전시관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년 무등산 천제단 일원에서 '무등산 천제' 행사를 진행하는 장면. <무등공부방 제공>

무등산 천제 '열리는 새 하늘'

광주문화재단, 4일 개최... '개천무'·'신명울림' 등 진행

남·북 갈등, 우·러전쟁, 이·팔전쟁 등 곳곳에서 국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태원·오송 참사 등 비극적 사건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진, 산발, 가뭄 등도 상시로 벌어지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무등공부방 등이 '제11회 무등산 천제'를 연다.

'열리는 새 하늘(開天)'이라는 주제로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무등산 천제단 일원에서 개최되며 '무등산 천제를 매개로 부정적 기운을 물리치자는 의도다.

무등산은 삼국-고려시대에 국제(國祭)를 지내는 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조선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천제를 거행했지만, 일제강점기에 천제단이 강제 철거돼 사라졌고 이후 60년대 의재 허백련, 오지호 화백 등과 민화회가 제단을 복원했다. 현재는 무등공부방,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천제를 거행하고 있다.

제의를 천제기를 앞세우고 풍물패를 따라 금줄을 통과하며 산에 들어서는 '입산의식'으로 막을 연다. 이어 별자리 28수를 받드는 봉행(奉行), 천제가 꽃기, 정화(淨化) 등이 펼쳐진다. 끝으로 하늘에 고하는 '고천문(告天文)' 낭독, 헌정의 의미를 담은 '헌가'와 '헌무', '개천무'와 '신명울림' 등도 진행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3시간동안 펼쳐지는 판소리 완창 공연

이왕재 판소리고법 음악회 '수궁가', 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명고는 없다'라는 경구는 소리꾼 못지않은 타악잡이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타악잡이 이왕재가 판소리고법 음악회 '수궁가'를 오는 4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판소리 북장단 '고법'을 주제로 세 시간 동안 소리북 완창 공연을 펼치는 것.

보성소리(판소리 유파) '수궁가'는 총 57개 대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초앞부터 끝까지 연주할 예정이다. 토막소리고법과는 달리 전체 레퍼토리를 세 시간 연주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북장단에 맞춰 윤진철 명창, 제자 김소진, 이이화 세 소리꾼이 '수궁가'를 완창한다.

먼저 이이화는 병든 용왕이 도사의 처방에 따라 별주부에게 화상(뽕타주)을 그려주며 토끼를 잡아 오라는 대목을 들려준다. 이어 육지로 나온 별주부가 토끼를 꾀 수궁으로 오는 대목은 소리꾼 김소진이,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살아남는 대목은 윤진철 명창이 소리한다. 끝으로 '더질더질' 대목은 세 소리꾼이



이왕재

함께 들려준다. 이왕재는 전남대 국악과 석사, 동대학원 음악학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광주에서 김희열, 김동원, 전경환 등에게 호남우도농악을 공부했으며 모듬북 창시자 김규형에게 모듬북, 판

소리고법 보유자 김청만에게 판소리고법을 이수 받았다. 국악실내악단 '황토제'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타악수석단원 및 부악장을 맡고 있다.

이왕재는 "이번 음악회를 위해 작년부터 '수궁가' 북 운영법, 소리와 반주 등을 꾸준히 연습해 왔다"며 "현장성과 즉흥성이 가미된 가락으로 멋진 판소리 한판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전석 2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조선왕조 도자오백년'

동국박물관, 분청자·백자 연구 공유 4일 학술대회...특별전도

조선시대 분청자와 백자는 우리 도자문화의 정수이자 한국적 미감을 상징한다. 분청자는 회색의 태토 위에 백토로 표면을 마무리한 도자기를, 백자는 태토와 유약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를 말한다.

분청자와 백자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박물관은 조선시대 명품 분청자와 백자를 선보이는 '조선왕조 도자오백년' 학술대회를 4일 오전 10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박물관 개관 3주년을 기념해 열리며, 조선시대 대표자기인 분청자와 백자에 관한 연구를 공유하는 자리다. 아울러 학술대회는 '조선왕조 도자오백년' 특별전(3~4일)과 연계해 열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약 100여 점도 전시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윤용이 교수(명지대 석좌교수)가 '조선 초기 분청자와 백자의 특징'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강성근(호남대 교수), 박경자(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나가이 마사히로(일본고고

학협회원), 최지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의 발표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 휴무이며 오전 10시~오후 6시 관람 가능하며 입장료 무료)

한편 '조선왕조 도자오백년' 특별전에서는 '백자 금화매화대나무무늬작은병'을 최초 언론에 실물 공개한다. 국내외 유일한 화금백자로 조선 초 경기도 지역 왕실용 도자기 가마에서 제작됐다. 순백색 백자 위에 금채를 활용해 만개한 매화나무와 풍죽을 당시 유행한 몰골법으로 그려넣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조선시대 백자에 금채를 한 유물이나 파편은 발표된 사례가 없어 화금백자는 생산되지 않은 것이 정설로 여겨졌지만,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사례다.

보문복지재단 정영현 이사장은 "분청자와 백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각기 대담함과 질박함, 담백함과 우아함을 특징으로 한다"며 "옛 선조들



'백자금화매화대나무무늬작은병'

이 일상에서 즐겼던 우리 문화에 대한 감성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빌딩시공

창호(삿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왕2길3(서왕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